

전주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더민주 독식'

전주시의회 제10대 하반기 의장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한 가운데 5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싸늘이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하반기도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8일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앞서 시의회는 하반기 의장에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명지 의원, 부의장에는 송상준 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8일 5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원내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 후보들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4.13 총선으로 선출한 도민의 민의는 민주당 일당 독재 행태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의당과 양당 구도를 만들어졌지만, 전주시의회 후

협치는 유명무실... 상임·부위원장도 싸늘이 예상

반기 원구성도 민주당 독식으로 끝날 경우 양당의 협치를 바라는 도민의 준엄한 심판은 무시한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뤄진 민주당 의원들의 후진적 행태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3명의 후보가 하반기 시의회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명지 후보를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미끼로 답합한 의원들이 당내 민주당의에 역행하는 합의 추대를 강행,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13총선에서 전주지역 3개 선거구

중 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힘을 실어준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정치력 부재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주시의회는 34명의 의원 중 더민주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의당 9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 1명 순이다.

과반을 훌쩍 넘는 더민주에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 제2당으로 더민주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하반기 원구성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더민주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이름만 다를 뿐 더민주의 2중대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크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원내 13명이 이

르는 초선 의원들도 시민들이 기대한 참신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론과 노획한 중진 의원들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협치를 통해 참신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외면하고 원내 과반을 앞세워 1당 독재체제에 힘을 보탠 초선의원들의 행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에는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더민주당이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집행부와 당적이 같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BI'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출원

이미지 관리·사업 홍보 탄력

전주시가 온두레 공동체 브랜드 이미지(BI)를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출원을 완료했다.

전주시는 특허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에 출원한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등 18건 업무표장 신청한 '온두레 공동체' 특허 업무표장 등록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온두레 공동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관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사회 통합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흠뻑했던 마음을 합치는 사업이다.

김영재 기자

온두레 공동체 BI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어주는 매듭을 표현, 화합과 결합의 의미를 담아 브랜드 '온두레'와 슬로건 '소통하는 이웃, 함께하는 마을'을 형식화해 제작했다.

시는 업무표장 출원이 완료된 온두레 공동체 BI를 공동체 발굴·육성 등 온두레 공동체 사업의 대내외적 홍보와 공동체 관련 제품 부착 상용화 홍보, 공동체 관련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속가능한 공동체육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에는 지난해 사업 참여 공동체 중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음단계 공동체 12곳과 11개 마을공동체, 생생마을 만들기 6개, 40개 소규모 공동체 등 69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불법 AIS가 부착된 어구 7일 군산해양안전서에 적발된 무허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A어선의 선장은 그물의 위치를 쉽게 찾고자 10개의 AIS를 설치했다.

파이프 훔친 30대 달미

완산경찰서는 7일 공사업체 사무실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28분경 완산구 기린대로 A(51)씨의 사무실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선반을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파이프를 훔쳤으나, 선반을 만들지 못하고 고물상에 83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훔친 파이프가 절단하고 남은 자투리라 길이가 서로 달라 선반을 만들 수 없어 고물상에 팔았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병실서 노트북 훔쳐 중고로 팔아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노트북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7일 병원에서 퇴원하며 같은 병실 환자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5시32분경 익산시 모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A(29)씨의 노트북(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여가 연골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으며, 퇴원을 준비하던 중 A씨의 노트북을 발견하고 총동적으로 노트북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지인이 맡긴 유명 화가 그림 빼돌린 60대 징역형

지인이 맡긴 유명 화가의 그림을 빼돌린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양시호 판사)는 지인이 맡긴 허반영 화백의 그림 9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용주 기자

강씨는 지난 2009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인 A씨가 맡긴 그림 9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A씨에게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 주택가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인터넷 통해 성매수남 모집 신분확인 명함요구 비밀지켜

전주 시내 오피스텔 등에서 원룸을 임대해 본점과 대리점으로 구분된 기업형 조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 2명, 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6명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까지 전주 시내 주택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당 최대 6곳의 원룸을 임대하고 본점과 대리점 형태로 운영, 성매수 남성을 분산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는 등 기법으로 성매

안진수 기자

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가 원룸에 이들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수남들이 연락해오면 처음 연락한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요구하고, 회원제로 성매수 남을 관리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들에게 시간당 15만원을 받아 업주가 6만원, 성매매 여성이 9만원씩 나눠 가졌으며 6개월여 불법 성매매를 통해 3개 업소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주 시내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진수 기자

전주항공대대 이전 집행정지신청 기각

법원 "1심 결정 정당"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항고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항공대대 이전부지의 가장 근접한 전주 도도마

를 주민들이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중지해달라고 항고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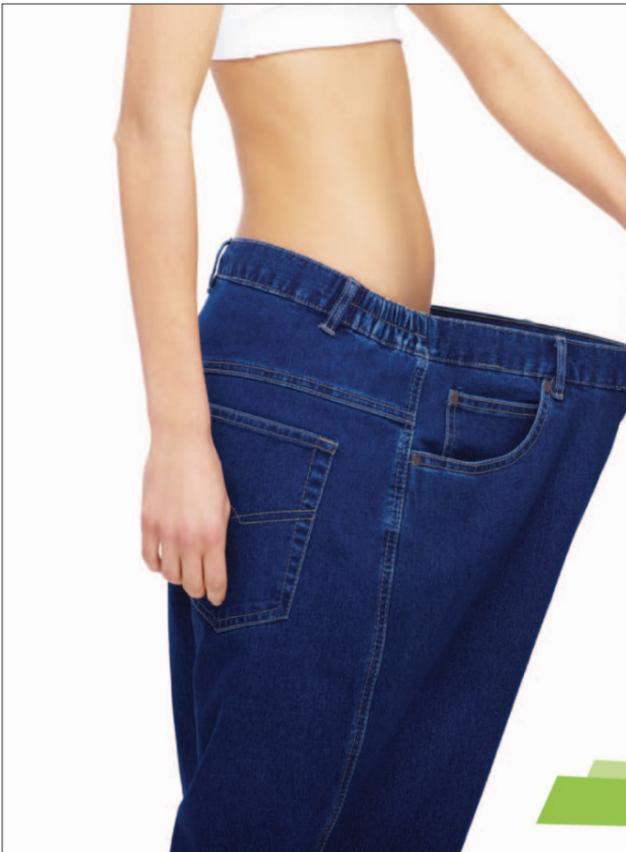
법원은 이번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재 기자

또한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상고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 11명과 도도마를 주민 45명이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항고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